

제266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 용 석(金容錫, 도봉1)
(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

존경하는 박기열 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기획경제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석 의원입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동 개정안은 버스운수사업자의 회계감사의 투명성 확보,

시민의 안전을 고려한 양질의 우수한 운수종사자 채용,

고액연봉 논란을 빚어온 임원 인건비 한도액을 서울시가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시내버스가 준공영제 시행이후부터 2014년까지

원활한 시내버스 운영을 위해 지원한 재정지원금이 2조

3천억원 규모에 달하고, 서울시 66개 시내버스 운송업체

중 65개 회사가 운송수지 적자임에도 임원 전원이 역대

연봉을 받고 있는 회사가 8개 회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례로 “S운수회사”의 경우, 3년 연속 100억원대 규모의 운송수지 적자(‘12년 94억원, ‘13년 98억원, ‘14년 115억원)를 내면서 버스회사 대표인 임원의 경우 3년 연속(‘12년 5억 4,700백만원, ‘13년 5억 4,900백만원, ‘14년 5억 5,000만원) 5억원 이상의 고액연봉을 받는 등, 방만한 운영이 도를 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서울시의 관리 감독도 허술한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본 개정안에서는 서울시와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가 공동으로 선정한 외부 회계 법인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받도록 개정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3월말까지 보고하도록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의 회계 관리에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버스업체별 경영정보 등과 함께 시민에게 공개토록 하고 있으며,**

- “우수한 운전종사자가 고용되는 것이 시민안전과 서비스 측면, 사업자별 버스기사 채용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하여, 운수사업자별 버스기사 채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명문화 하며,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민간버스업체에 지원되고 있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효율성 제고와 방만 경영에 대한 견제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금 등 운송비용 집행의 적정여부, 운송수입금 관리 실태 지도점검 실시를 정례화 하도록 하는 등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입니다.

- 준공영제에 따른 시내버스의 운전기사 채용비리와 재정지원에 관한 서울시의 관리감독이 보다 확실하고 철저하게 개선되고 권리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개정안의 내용 취지를 잘 살피셔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